

국내 전기차 중심 시장 전환을 촉진하는 2026 친환경차 정책 강화

해당국가	한국	기관(기업)	기후에너지환경부	동향분야	정책	국토교통 기술분류	도로교통
□ 국내 도로교통 분야에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가 온실가스 감축과 교통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부상하며 전기차 중심 시장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 강화 ○ 2026년부터 국내 친환경 자동차 정책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직접 유도하는 보조금 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추진 - 정부는 전기차 구매 시 지급되는 기본 보조금 체계를 유지하면서, 기존 내연기관차를 폐차 또는 매각 후 전기차로 교체하는 경우 추가 '전환지원금'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 - 이는 단순 신규 전기차 보급 확대를 넘어 기존 차량 보유 구조를 친환경 차량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적 방향이 반영된 조치로 평가 ○ 국내 도로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구조와 내연기관차 중심 차량 구성은 친환경차 정책 강화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 - 정부는 교통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수송부문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전기차 전환 정책을 설정 - 특히 승용차 부문을 중심으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여 도심 교통 분야의 탄소 배출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제시 □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성능·효율·기술 경쟁력을 반영한 차등 지원 구조로 전환되며 친환경 자동차 기술 고도화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발전 ○ 2026년 전기차 보조금 체계는 주행거리·충전 성능 등 차량 기술 성능 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기술 경쟁 중심 시장 구조 형성 유도 - 보조금 산정 시 1회 충전 주행거리, 충전 속도 등 성능 지표를 반영하여 고성능 전기차 개발을 유도하는 정책 방향 채택 - 이를 통해 단순 보급 물량 확대가 아니라 전기차 기술 경쟁력과 차량 성능 수준 전반의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구조로 전환 ○ 전환지원금 도입으로 친환경차 정책이 단순 구매 보조를 넘어 기존 내연차 보유자의 차량 교체를 직접 유도하는 시장 전환 정책으로 확대 - 기존 내연기관차를 유지한 상태에서 전기차를 추가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차량 교체를 유도하는 정책 구조로 설계 - 이는 친환경 자동차 정책이 단순 보조금 정책을 넘어 도로교통 시장의 차량 구성 자체를 전환하는 구조적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 ※ 출처 : 기후에너지환경부(2026.01.03),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, 내연차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기반은 키우는 방향으로 개편							